

# 2013년 국내외 경제전망

---

2012. 1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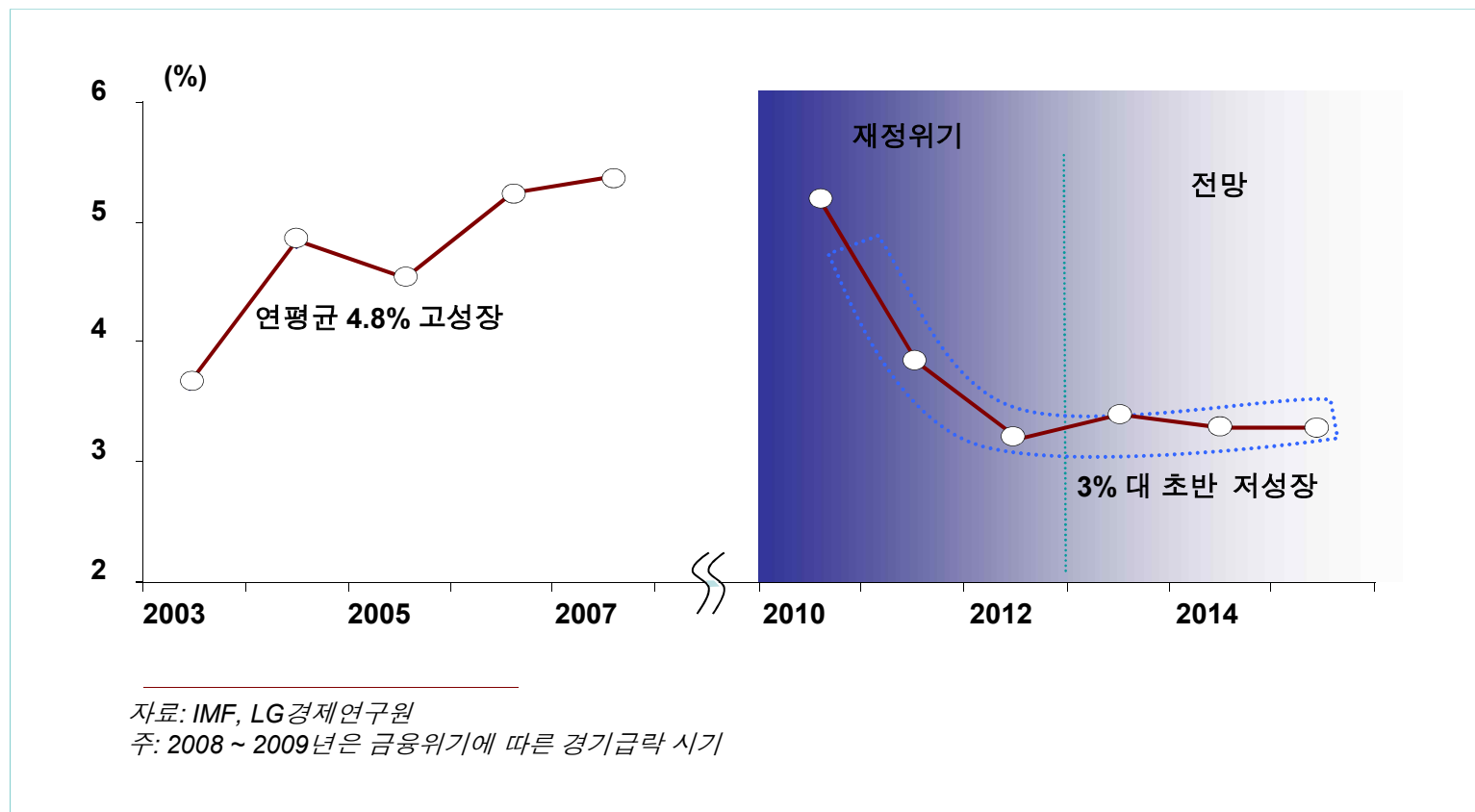


 세계 경제전망

 국내 경제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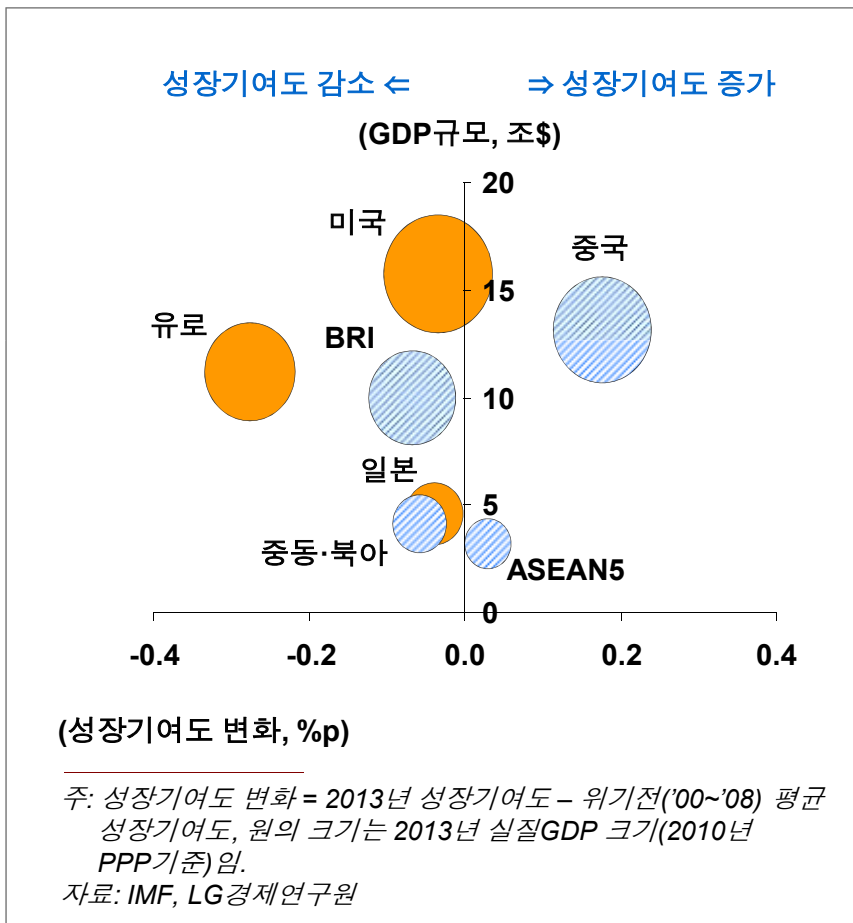
## 2013년에도 3%대 초반의 부진한 양상

세계경제 성장을 추이(%)



## 유로존, BRIs 부진 지속되는 가운데 G2는 버팀목 역할

### 주요국 세계경제 성장 기여도 변화



#### G2

- 세계경기의 추가 하락 저지하는 역할
  - 미국 : 주택경기 호전되며 2%대 성장 유지
  - 중국 : 신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7~8%대 성장

#### 유로/일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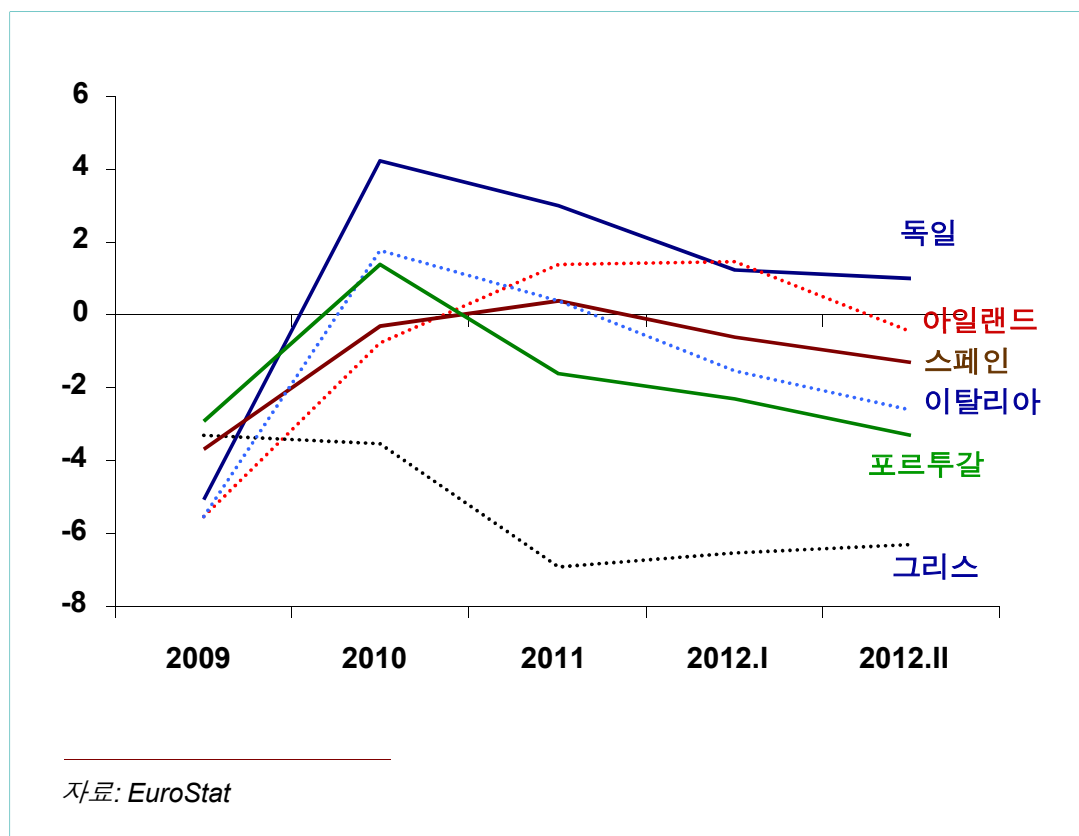
- 부진 지속으로 글로벌 수요회복 제약
  - 유로 : 재정긴축, 신용공급 위축으로 수요부진
  - 일본 : 대지진 반등효과 사라지고 수출부진 지속

#### BRIs

- 인프라투자 확대되면서 올해 대비 성장률 높아질 것이나,
- 직접투자 감소, 내수성장 한계로 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성장세 전망

## 유로존 국가 대부분, 아직 위기 이전 GDP 수준에 미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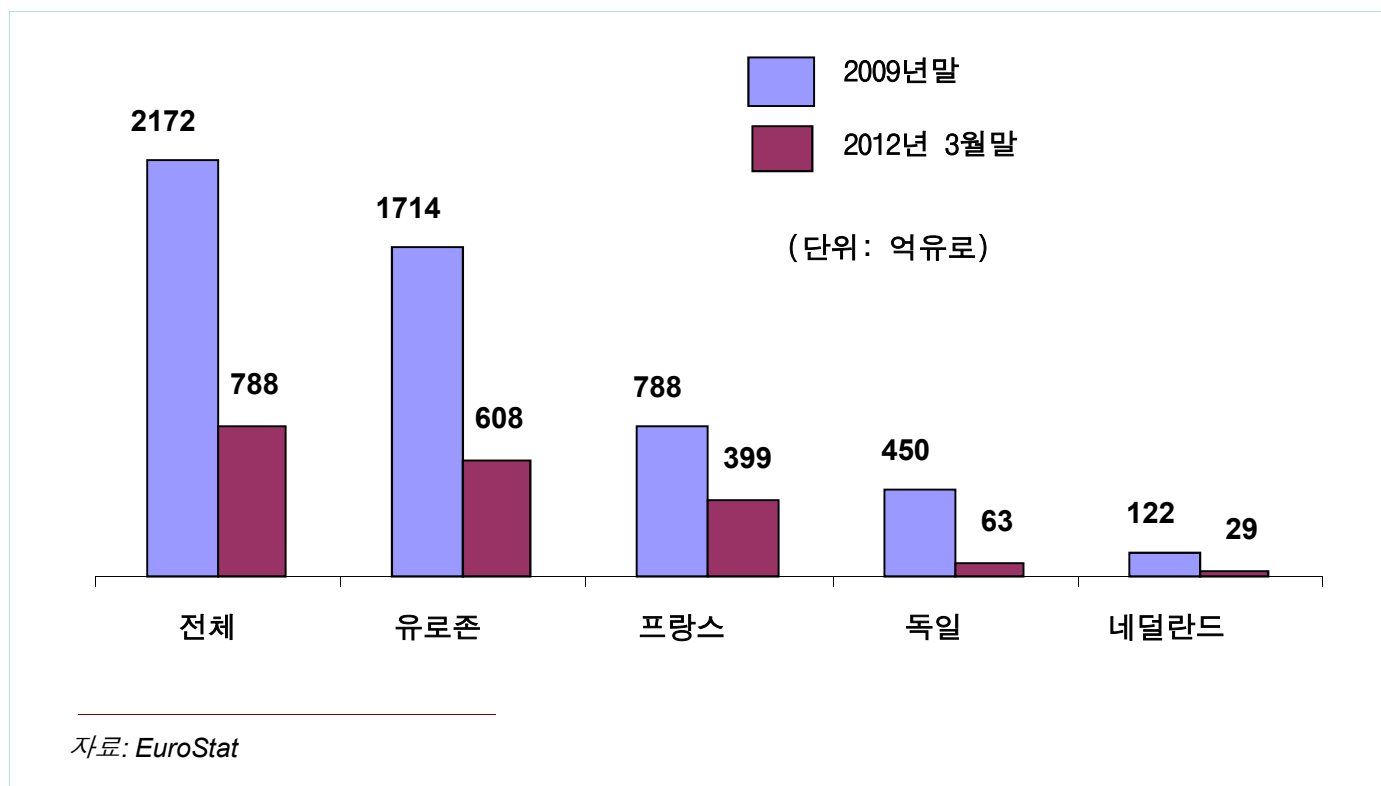
주요 유로존 국가의 성장률 추이 (%)



- 그 동안 고성장세 유지하던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성장세도 최근 지속적으로 둔화
- 유로존 역내 교역 위축의 영향...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10% 이상 줄어든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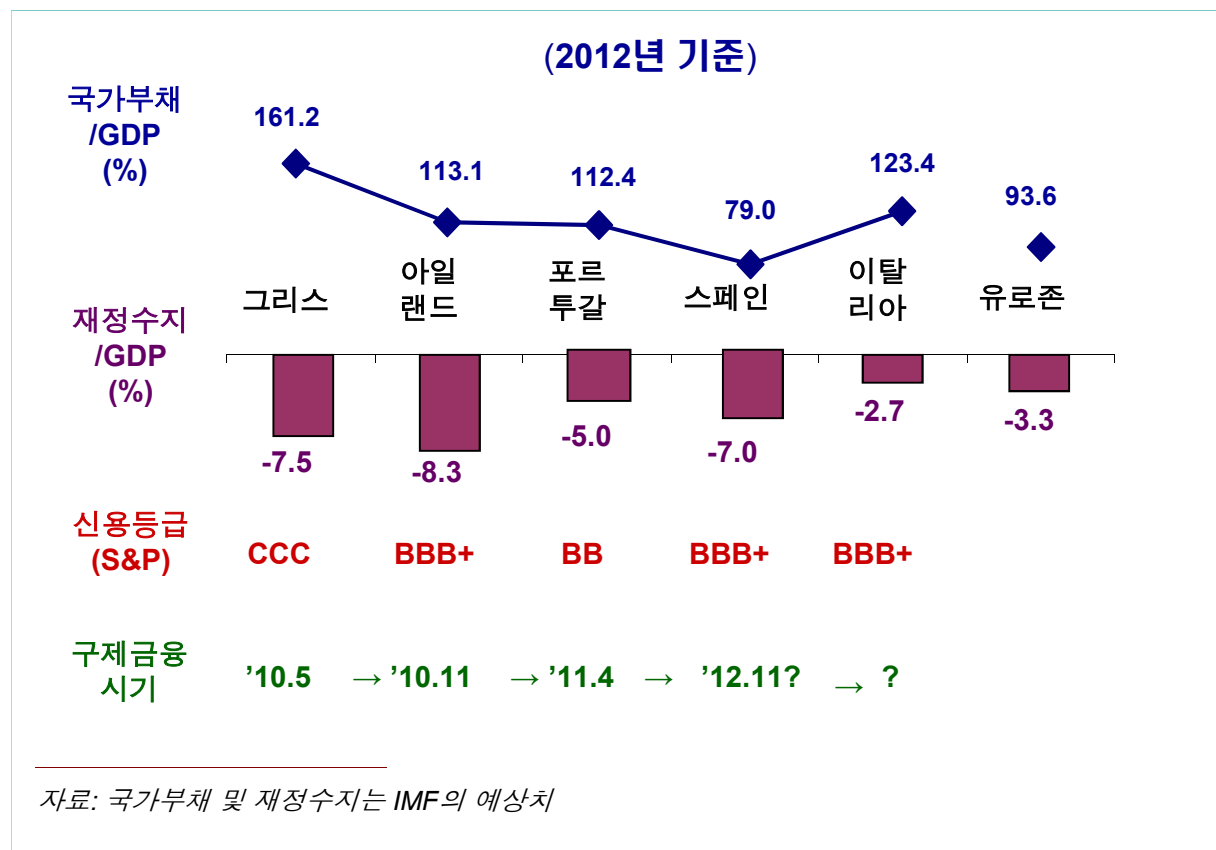
##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...영향은 제한적

주요 국가별 그리스에 대한 Exposure 변화



## 스페인 구제금융 불가피, 이탈리아가 다음 차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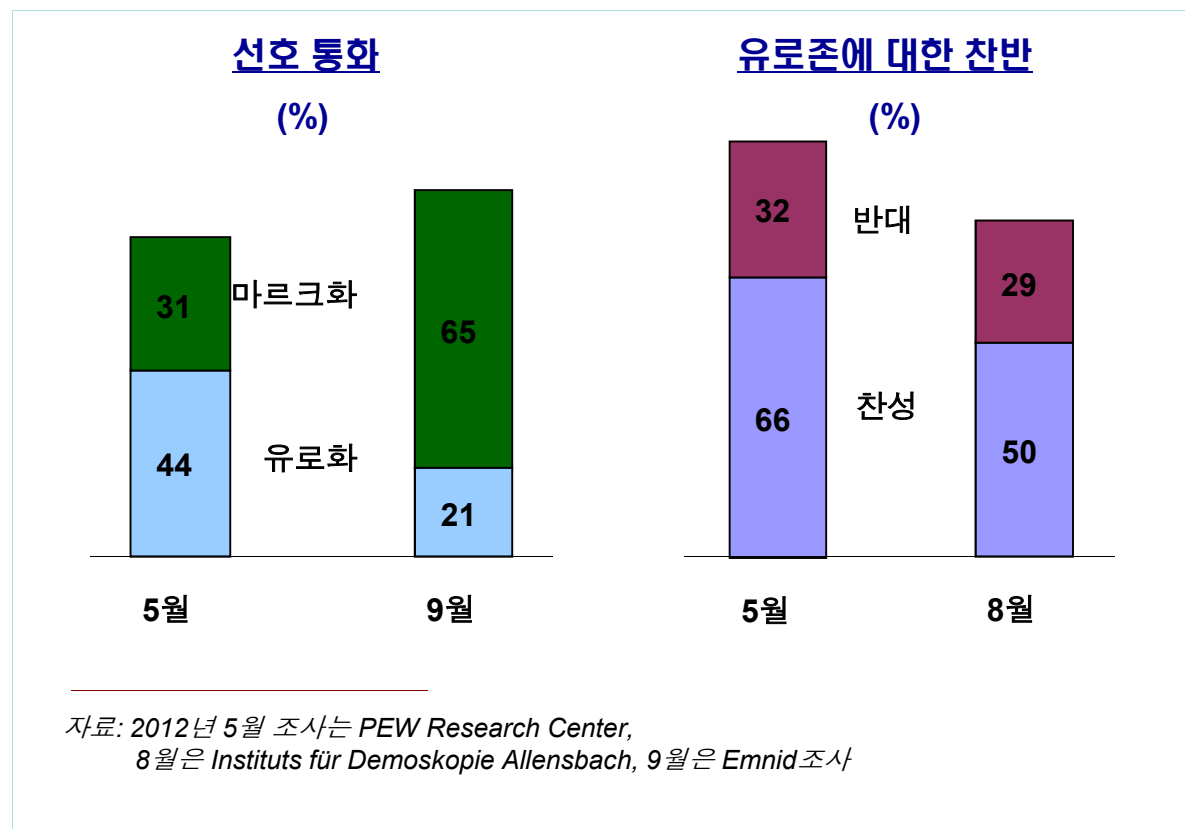
### PIIGS 국가들의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규모



- 스페인, 부동산 버블붕괴에 따른 은행부실 처리와 지방정부 재정지원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
- 이탈리아는 재정수지 양호... 그러나 과도한 정부부채와 고금리 부담으로 만기도래 국채의 차환이 점차 어려워질 가능성

## 각국의 입장 차이로 문제 해결 지연... 독일의 과감한 지원 어려워

### 유로존에 대한 독일 국민의 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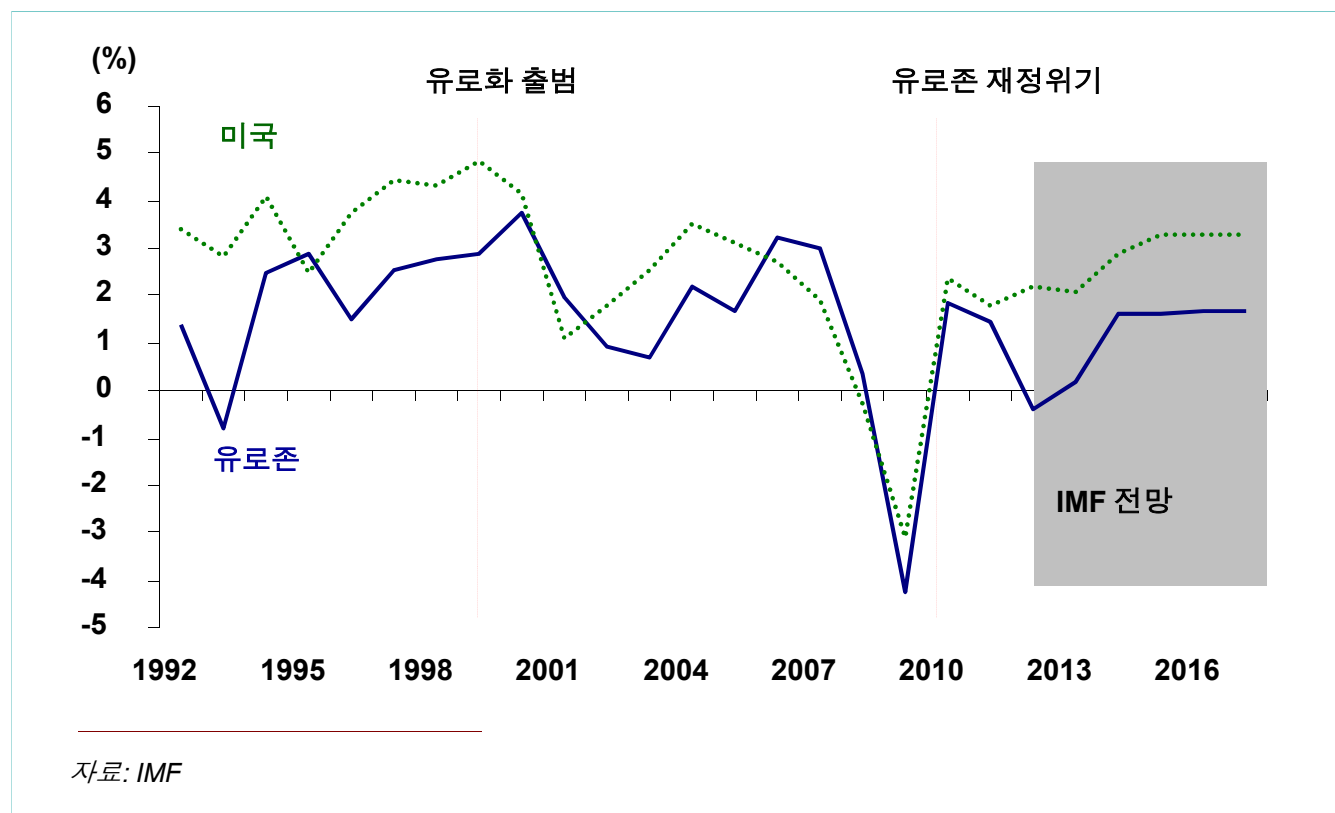


- 유로화에 대한 선호 크게 약화, 하지만 유로존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은 다수... 유로존 위기 악화가 독일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
- 다른 국가에 대한 지원에는 거부감... 특히 그리스 지원에 동의하는 의견은 소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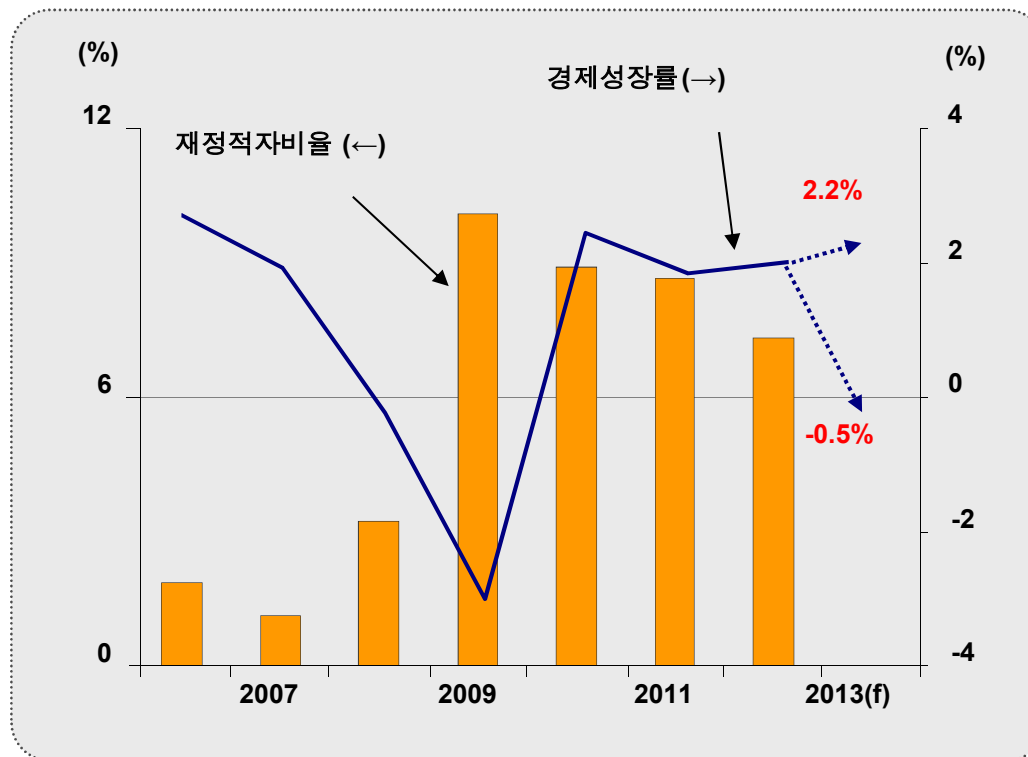


# 내년에도 소폭의 플러스 성장에 머물 전망

## 유로존과 미국의 중장기 성장을 추이 및 전망



##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, 재정위험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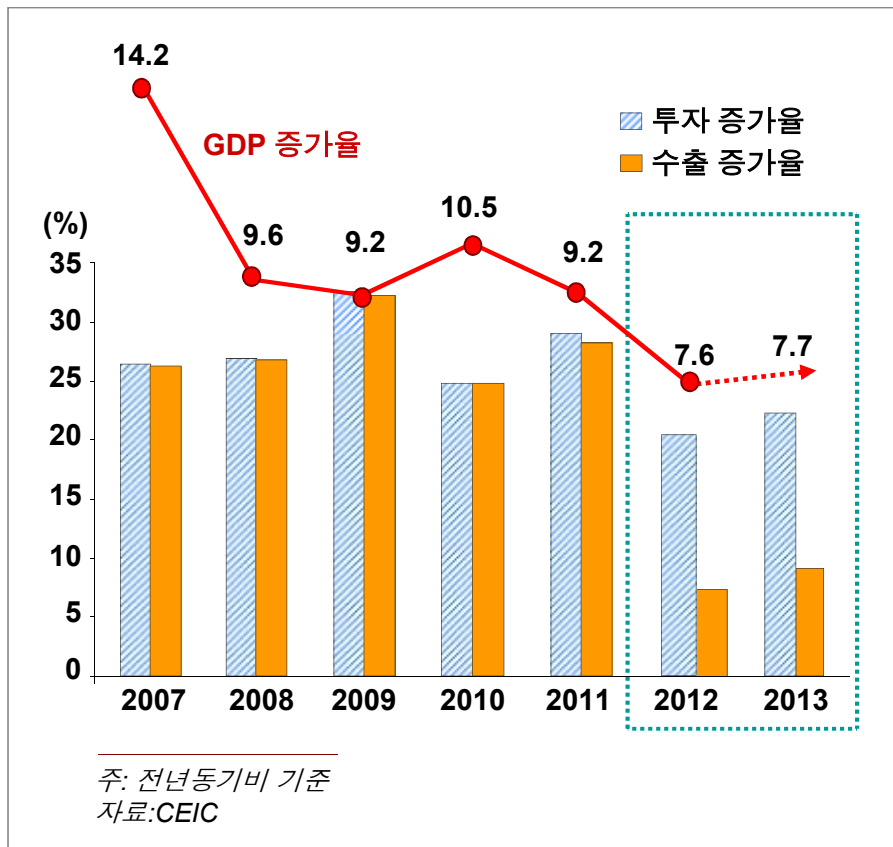


### Fiscal Cliff?

- 정치권의 재정 적자 감축 폭 축소 합의 시 → 내년 성장률 2.2%
- 타협 실패로 재정 절벽 현실화 시 → 내년 성장률 -0.5%

## 내년에도 7~8% 성장에 머무를 듯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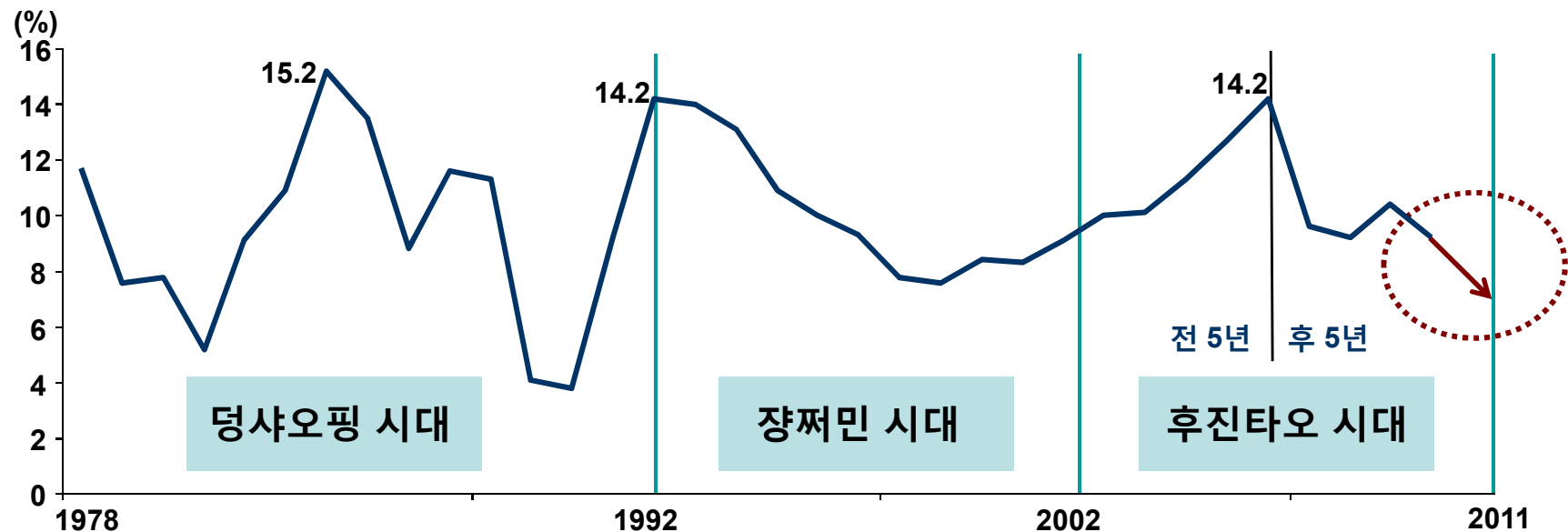
### 수출/투자/GDP 증가율 추이 및 전망



- 성장률 7% 대로 하락 예상
  - 수출 큰 폭으로 둔화. 세계교역 둔화로 수출 증가율은 7월 누적 7.8%...지난해 1/3 수준
  - 인프라투자 등 경기 부양책 효과로 4분기부터 완만하게 경기 개선될 것.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부진한 수준
- 경착륙 위험 줄어듦
  -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... 주택 가격 폭락하지 않을 것
-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정권 교체... 그러나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은 유지될 것

## 중국정부의 개혁이 성장을 주도

###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 GDP 성장률의 변화

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

- ◆ 덩샤오핑 시대(1979~1992) : 연평균 성장 8.8% , 개혁 초기 어려움과 구소련 붕괴, '천안문 사태'의 역경을 극복
- ◆ 장쩌민 시대(1993~2002) : 평균 9.9%, 90년대 초기의 경제 과열과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 극복
- ◆ 후진타오 시대(2003~2012) : 기존 개혁 기반과 세계경제 호황 환경에 힘입어 前5년 연평균 11.2%, 역사상 최고 수준  
단, 개혁 동력의 부재와 세계금융위기 영향으로 后5년 연평균 9.2%, 2010년 이후 하락 추세

## 중국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개혁추진 기대

### 공업화,도시화 진행 중

- 아직 수억 농민들이 생산성이 더 높은 비농업 분야로 이전 요구
- 내륙지역의 교통과 도시건설 등 인프라 투자 수요 방대

### '기러기'식 발전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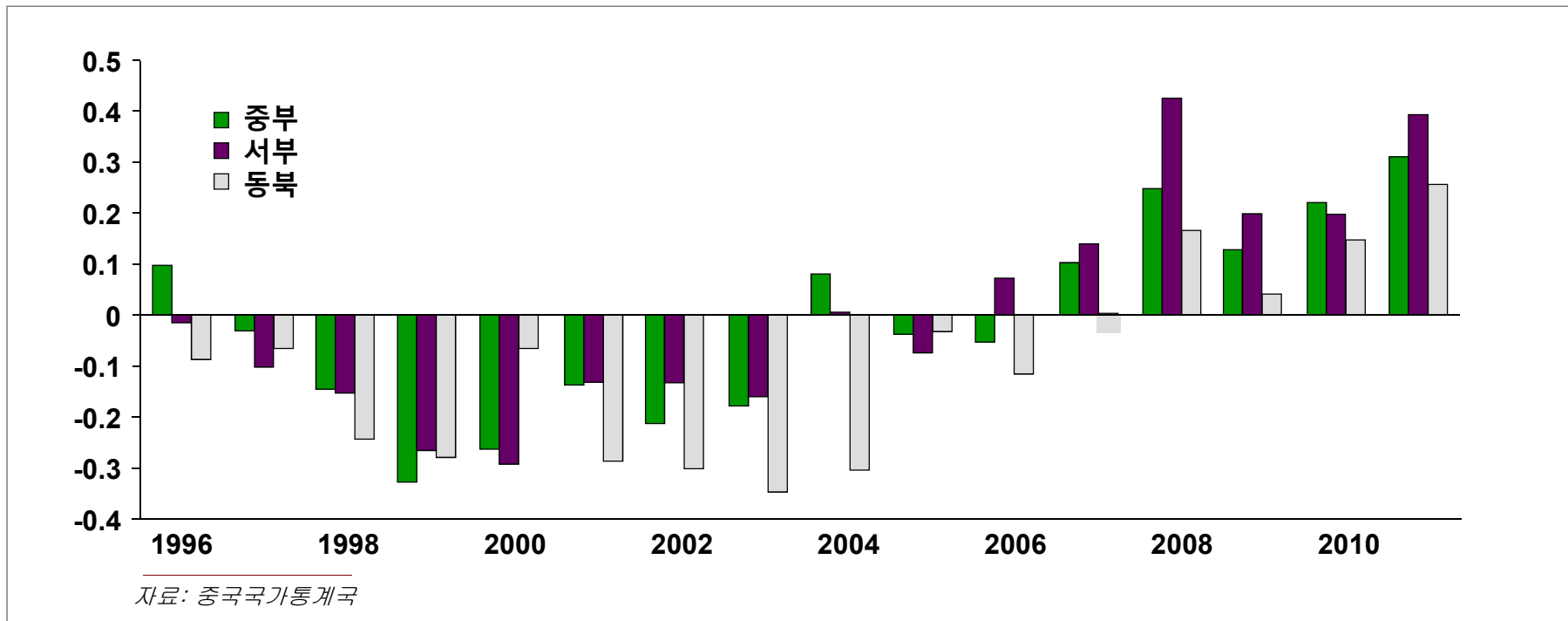
- 중서부 지역의 경제성장 가속화, 공업화의 '이륙' 단계 시작
- 향후에도 선진국경제 부진, 내수시장 주도 경제구조전환 불가피

### 시진핑 지도부 시대적 특징

- 시진핑 지도부 50년대 출생, '문화대혁명' 중 理想·현실 모순경험
- '下鄉지식청년' 으로 농촌 최하층 생활을 경험
- 개혁 이후 정치환경에서 현대화 교육 경험과 국제화 경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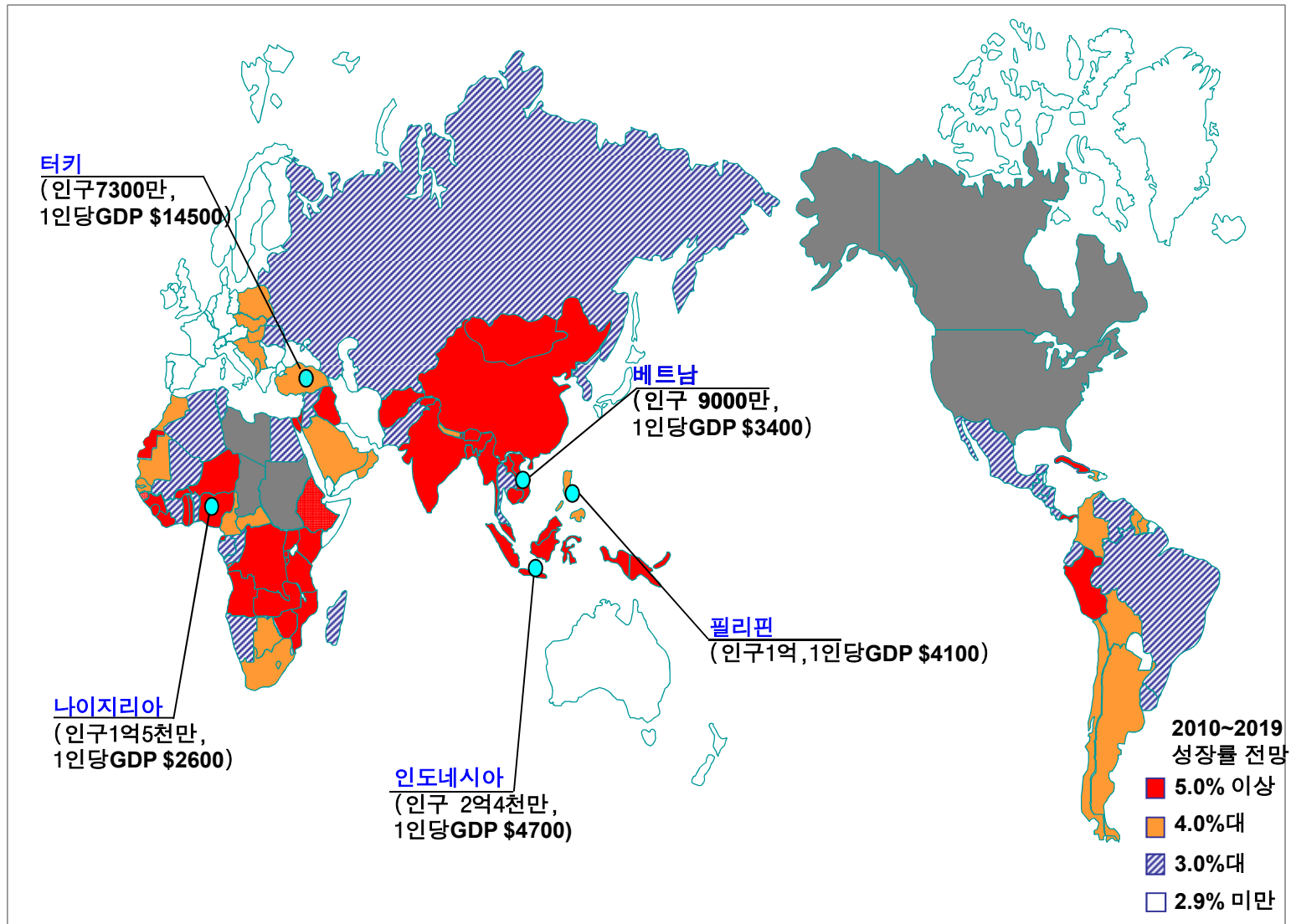
## 고성장 지속을 위한 새로운 개혁추진 예상

### 동부연해지역에 대한 중,서부,동북지역 GDP의 발전속도 차이(배)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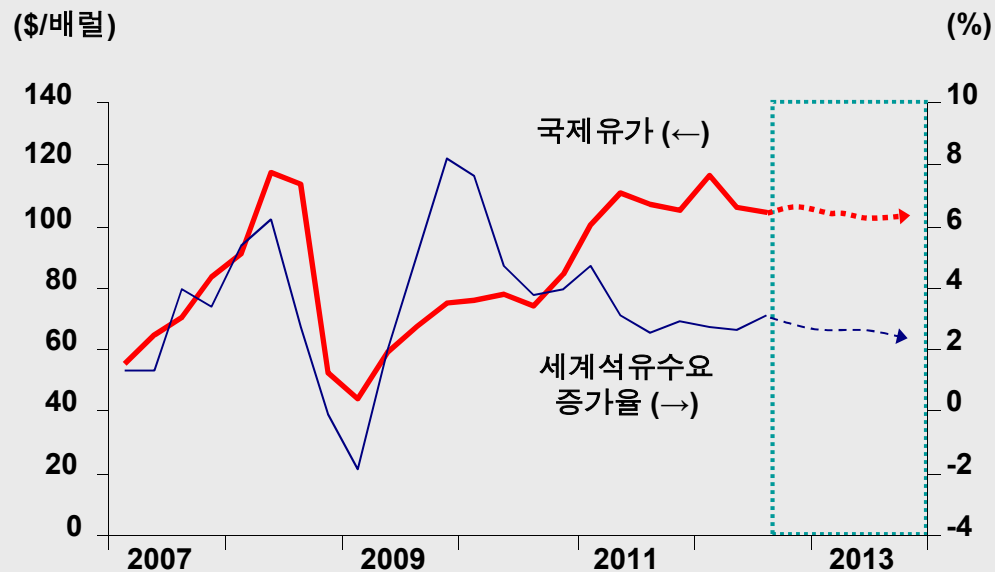


- 2006년 이후 ‘중부 쉼기’, ‘서부 대개발’ 전략 추진 효과, 철도, 고속도로, 내륙 항운 시설 확장의 영향
- 중서부 지역은 주로 내수형 경제구조, 국제시장 수요감소의 영향을 적게 받음.
  - 예: 중부 지역 후베이성 2011년 GDP 성장률 13.5%(전국 평균 9.2%)

## 동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상대적 고성장



##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~110달러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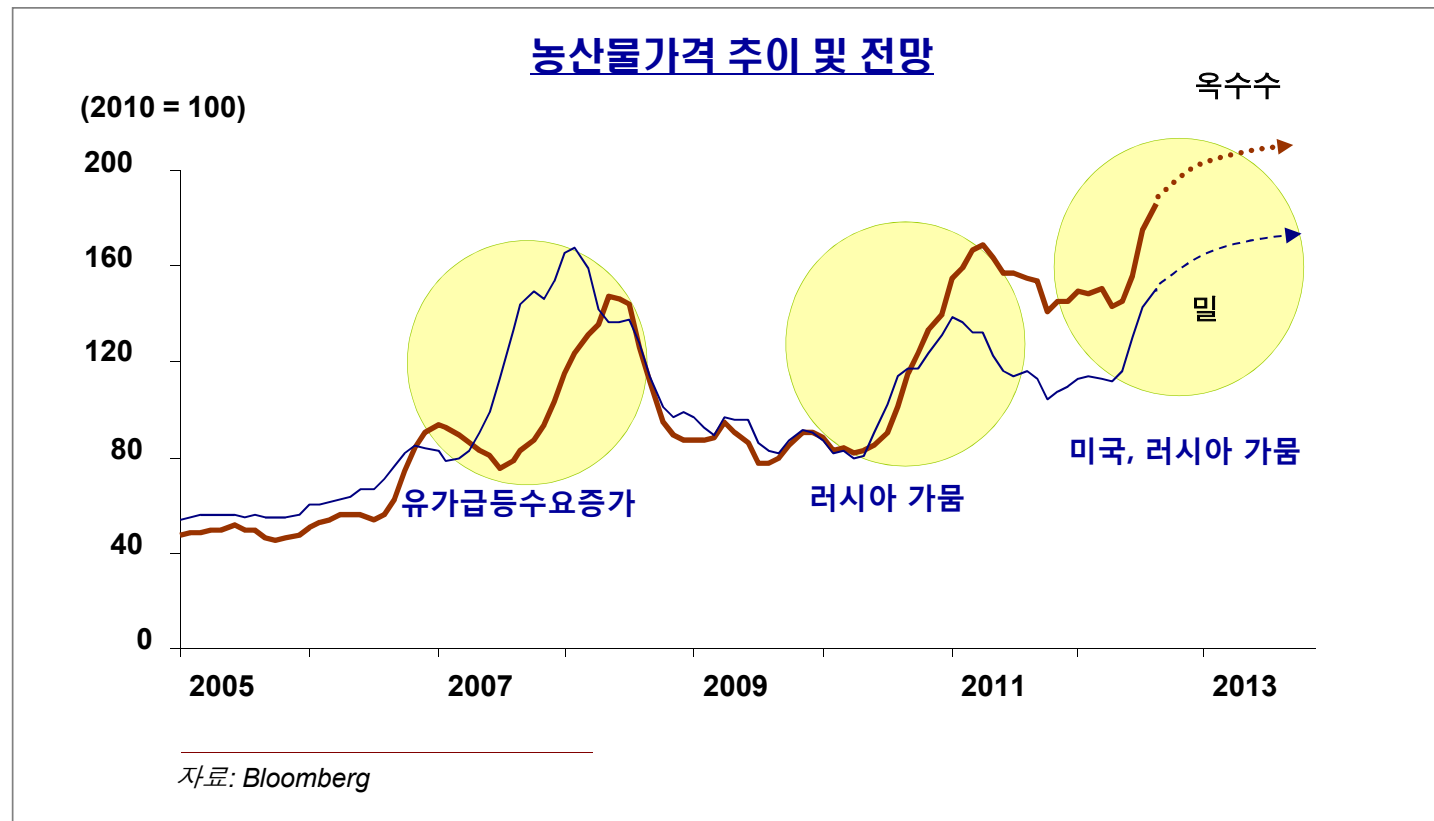


주: 두바이유 기준, 세계석유수요는 3개월 이동평균치임.  
자료: EIA, Petronet

- 100달러 대 유지
  - 가격 하락 요인: 수요 둔화, 비전통 석유 공급 확대
  - 가격 하락 억제 요인: 공급 제약 (이란 제재, OPEC의 산유량 조절)
- 국제 유가의 장기 상승 (Super cycle) 당분간 재현되기 힘들 것



## 농산물 가격은 강세 흐름 이어질 듯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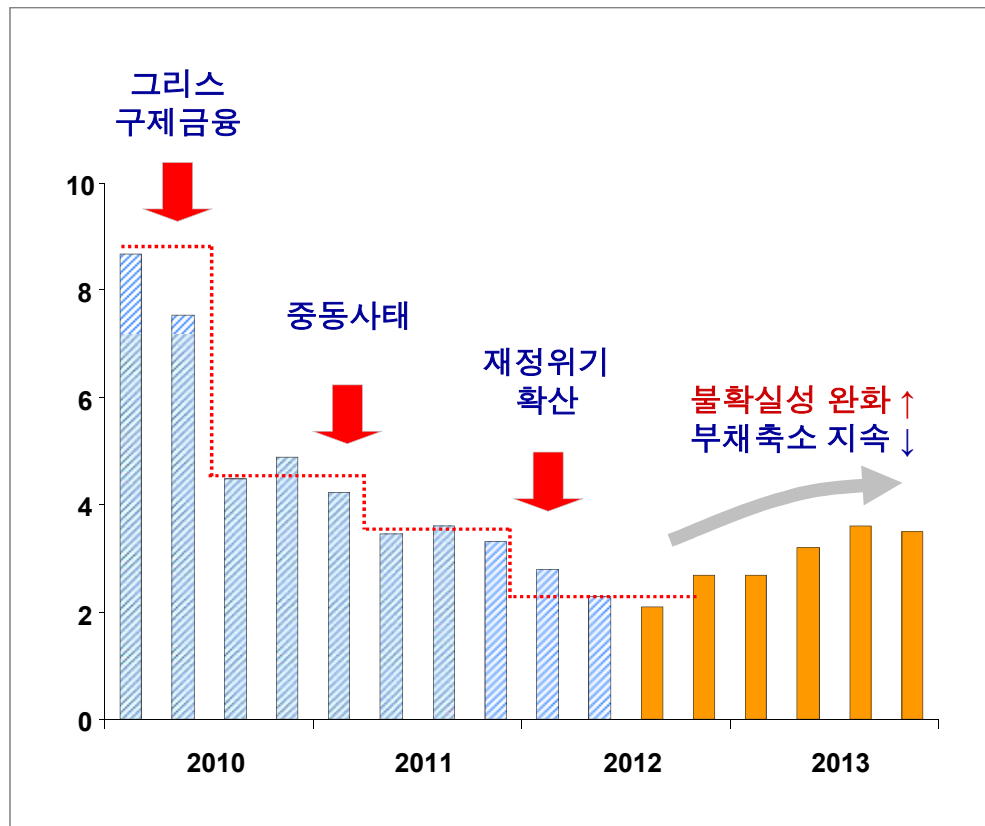


 세계 경제전망

 국내 경제전망

## 올해보다 개선되나 미진한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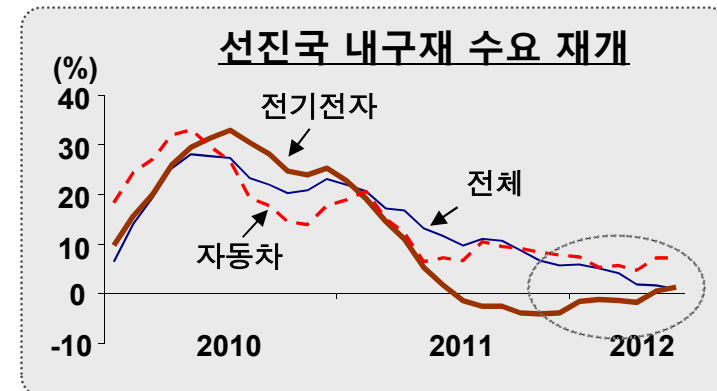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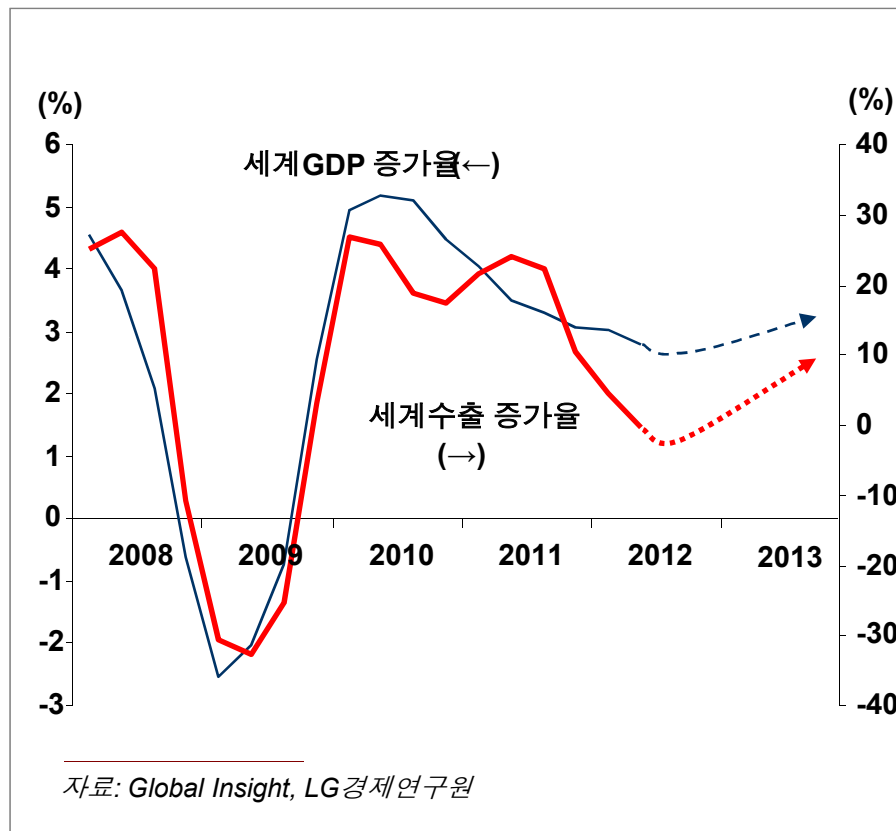
### 대외 충격에 민감한 국내경제성장



- 올해 국내경제는 세계 평균성장세보다 더 빠르게 하락... 대외충격에 민감하게 반응
- 국내외 경기부양책 효과 등으로 올 4분기 이후 성장하락세 멈출 것... 내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과 유사한 3%대 초반(올해 2.5% 전망) 성장 예상
- 중기적으로 국내경제는 4%대 성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
## 내구재 대기수요 재개되면서 완만한 반등

### 세계경기에 비해 교역이 더 크게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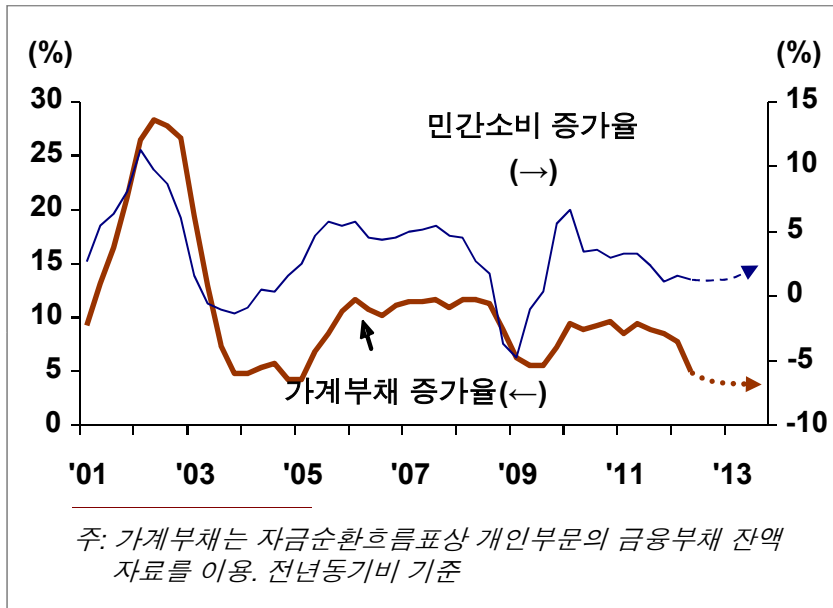


주: 미국과 유럽의 수입액 합을 이용, 전년동월비 기준  
자료: 무역협회

- 선진국 경기에 밀접한 세계교역 올해 크게 위축
  - 우리 수출은 선진국 경기와 상관계수가 0.54로 개도국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높아
-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완화되면서 세계교역 완만한 반등 예상
  - 내구재 대기수요 재개, 개도국 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출 증가 예상
  - 원화절상,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는 위협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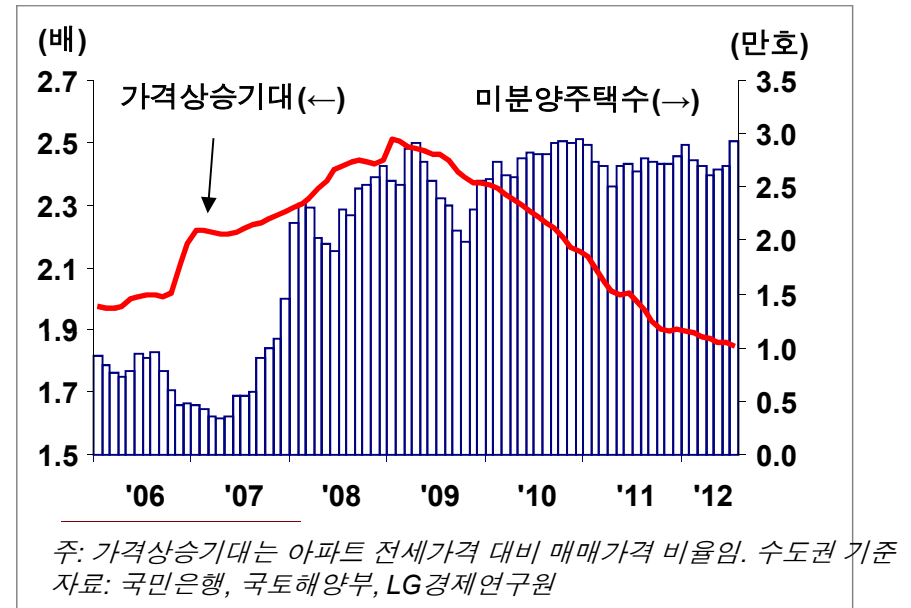
## 가계의 부채조정, 부동산경기 침체로 내수 부진 지속

### 부채조정으로 민간소비 회복 제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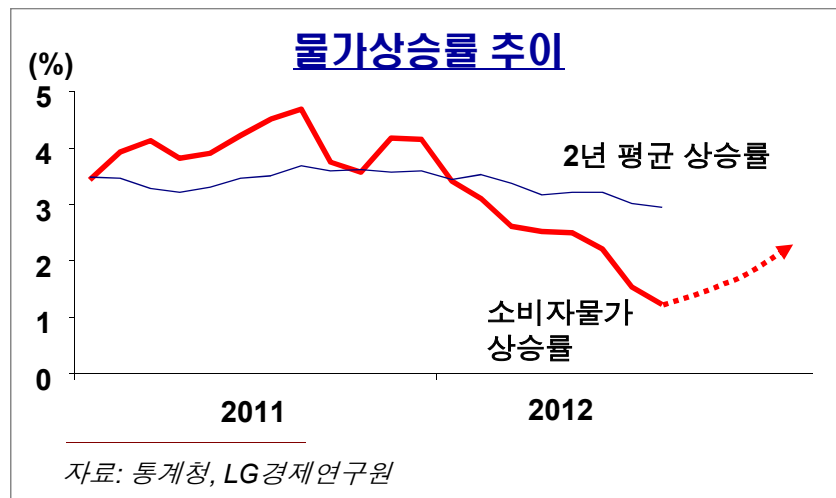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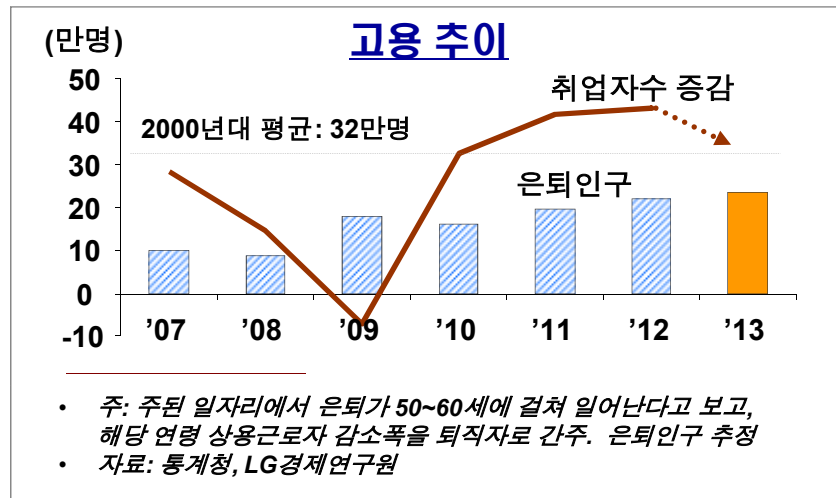
- 경제불안심리 줄어들면서 크게 위축되었던 자동차, 가구, 의복 등 내구재 소비 재개 예상되나,
-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차입을 통한 소비 어려워지고 절약하려는 성향 강화될 것
  - 저소득층의 경우 고용불안, 고소득층의 경우 자산수익률 하락이 부채부담을 높이는 요인

### 수도권 미분양 적체 지속



- 부동산 경기 회복 어려워 주택건설 부진 지속
  - 장기 성장활력 저하로 자산의 미래 기대소득 낮게 형성
  - 수도권 중심 미분양물량 적체, 상대적 활기 보이던 지방 부동산경기도 최근 둔화
-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는 소폭 회복 예상

## 취업자 증가수는 20만명대로 둔화, 소비자물가 3% 아래의 안정세 지속



### 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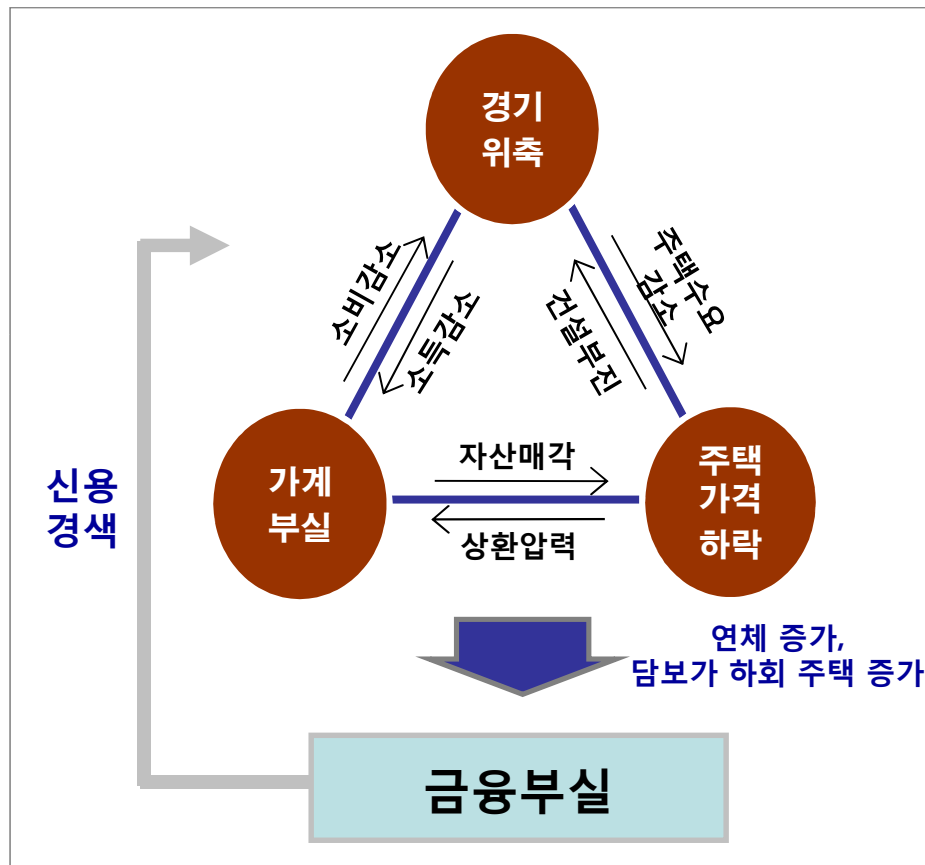
- 경제성장률 3% 초반에 머무르면서 수요 측면에서 고용유발효과 크지 않을 것
  -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, 수출의 완만한 회복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 정체 예상
- 자영업 경쟁 심화 예상
  - 정규직 은퇴자가 연간 20만명을 넘어섰으며 내년 더욱 늘어날 전망

### 물가

- 수요측면에서 물가압력 크지 않을 전망
  - 국내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
- 국제곡물가 상승 등으로 내년에는 2%대 후반으로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
  - 국제곡물가 상승, 태풍영향 등으로 식료품 가격 오를 전망
  - 다만 원화절상, 국제유가 안정 등을 감안하면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

## 가계부채,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...

### 가계부채 위기 시나리오



### 주요 리스크 평가

#### 가계 부채

- 대외충격 등으로 국내경기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.
- 그러나 저소득층 부실 확대, 소비위축 등 부작용

#### 자영업 부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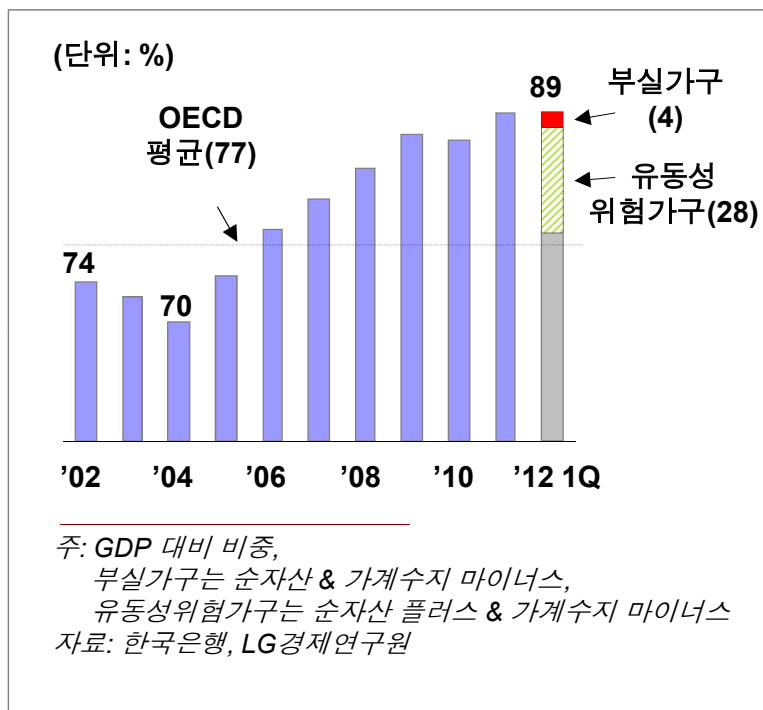
- 내수부진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 진출은 계속되면서 폐업 속출할 것
-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자영업에 나선 은퇴 베이비부머들의 부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

#### 기업 부실

-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 과도한 건설, 조선 부문 등의 기업부실 계속될 것
- 우리경제의 대응능력 커져 외환위기와 같은 불안확산 가능성 높지 않으나 금융권 신용축소 등 부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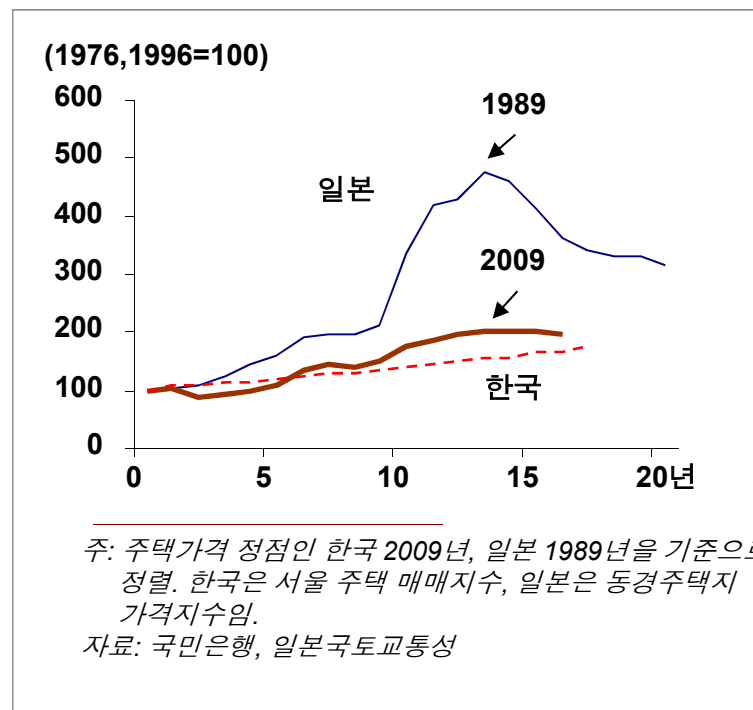
## 가계부채 조정, 부동산시장 침체로 내수부진 지속

### 가계부채 규모



- 높은 가계부채 규모는 위험 요인(한국 89%, OECD 평균 77%)
- 최근 부채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등 부채조정 시작 조짐

### 주택시장 거품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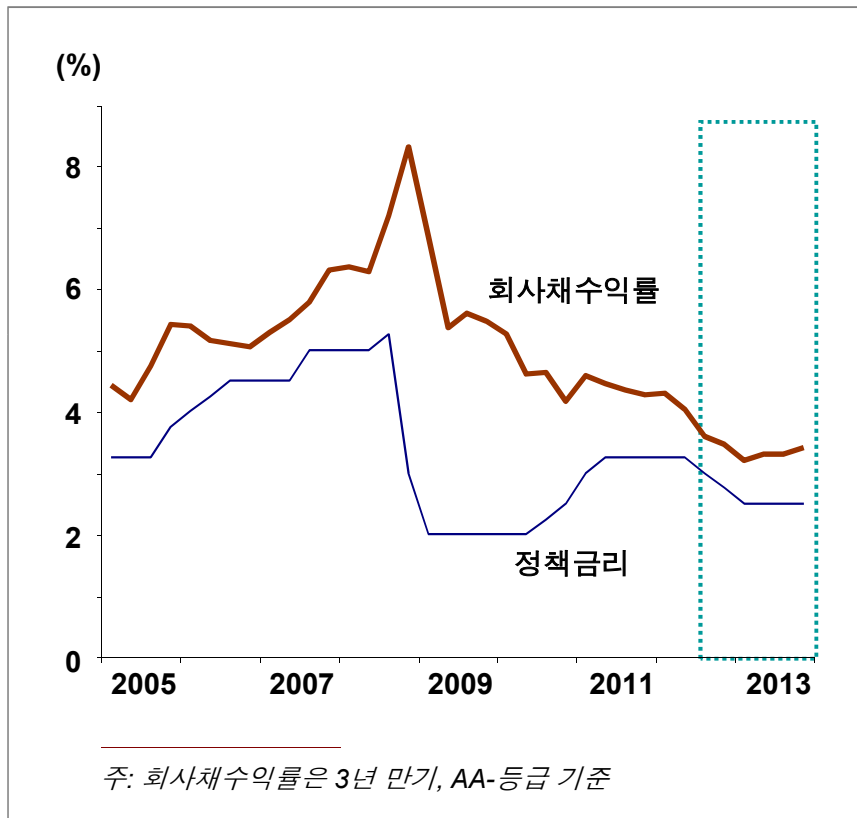
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
- 가격조정속도는 완만한 수준(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2009년말 대비 4.6% 감소)



# 정책금리 인하되는 가운데 저금리 추세 이어질 전망

### 정책금리와 회사채수익률 추이 및 전망



#### 정책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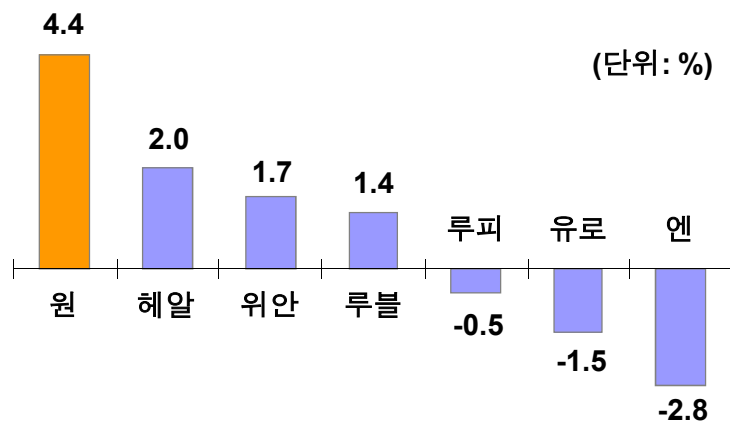
- 내년 상반기까지 2% 중반 수준으로 인하될 듯
  - 낮은 물가상승률
  - 경기 부진 지속
  -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 기조

#### 시장금리

- 낮은 수준 유지
  - 풍부한 채권 매수 자금...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확대 추세
  - 경기 둔화로 인한 자금 수요 부진
- 회사채수익률 역시 안정적인 모습 예상
-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 시 비우량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워질 위험성 상존할 듯

## 원화 절상 전망... 달러당 평균 1,080원

### 2012~2013년 달러 대비 가치 변화 폭



주: 2012년 평균 대비 2013년 평균, 주요 기관 전망치 참조

- 경상수지 흑자 지속,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상대적으로 저평가
-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환율급변 가능성 상존

### 주요 환율 전망

#### 달러

- 경기상황은 유럽,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 예상
- 재정절벽 논란으로 일시적 약세 예상되나, 이후 현 수준 회복할 전망

#### 유로

- 금리인하 및 통화완화 압력 지속
- 재정통합 완결되기까지 유로화에 대한 불안심리 남아

#### 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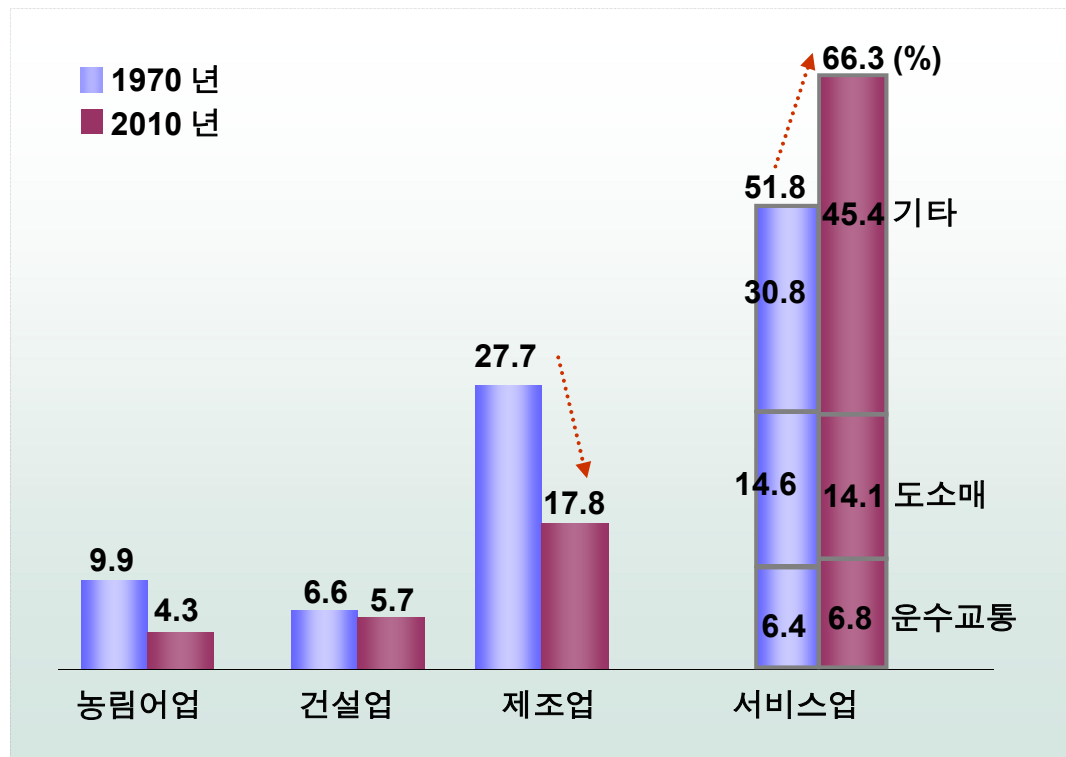
- 안전자산으로서 선호되나, 무역흑자 감소로 엔화강세 압력 약화
- 소비세 인상 결정('12.6)으로 중장기 재정우려 다소 완화

#### 위안

- 수출위축에 따른 경기급락 막기 위해 위안화 절상 속도 떨어뜨릴 것... 연 1~2% 예상

## 지난 40년간 세계 제조업 비중 큰 폭 하락

### 서비스 비중은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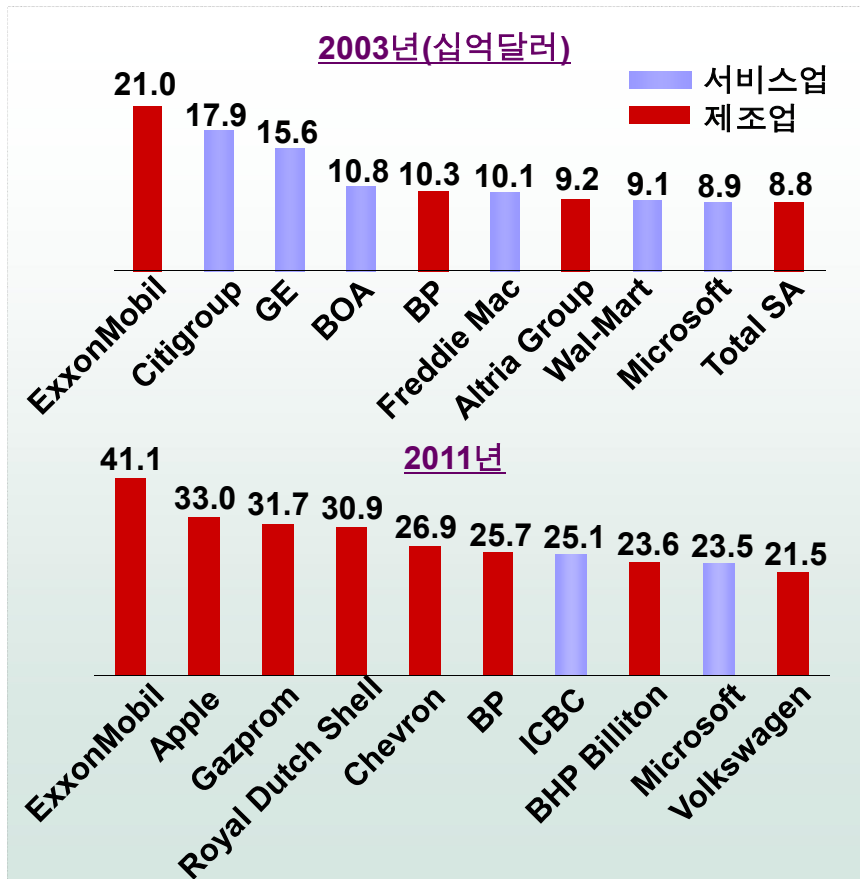


- 전세계 제조업 비중은 지난 40년간 10%p 하락 (27.7%→17.8%)
- 도소매, 운수 등 전통서비스는 정체  
금융, 사업, 전문서비스 비중 빠르게 상승

자료 : UN National Account, 184개국 합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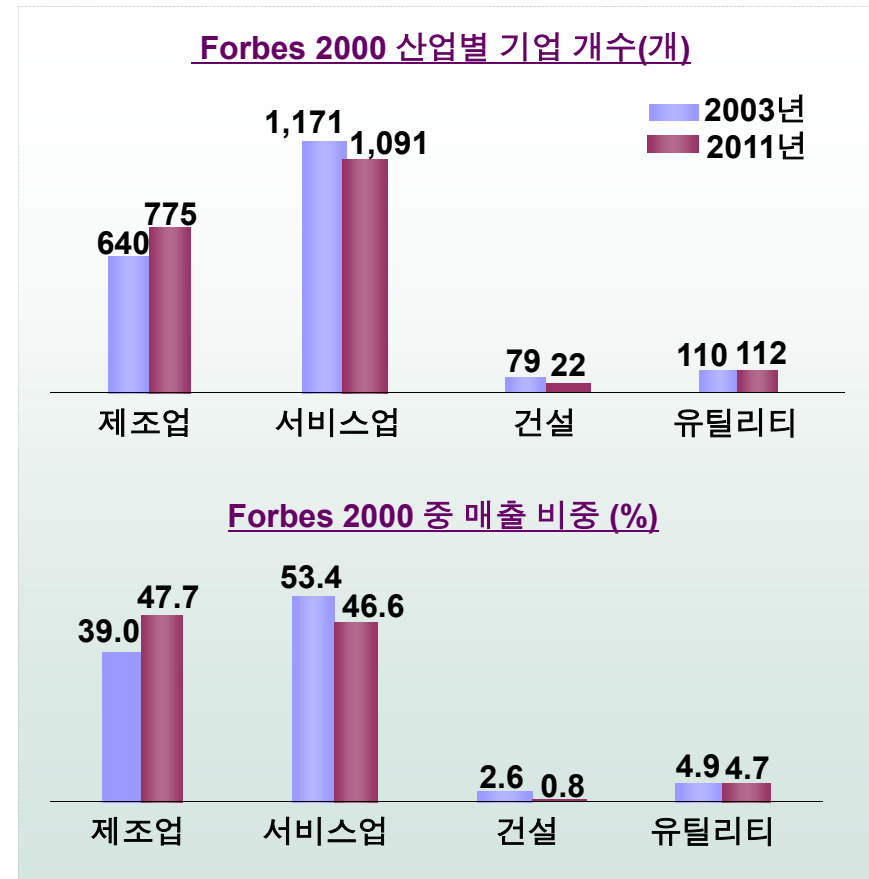
## 기업 경영 성과 면에서 제조기업의 약진

글로벌 Top 10 수익기업, 제조업이 장악



주: 순익(profits) 기준  
자료: Forb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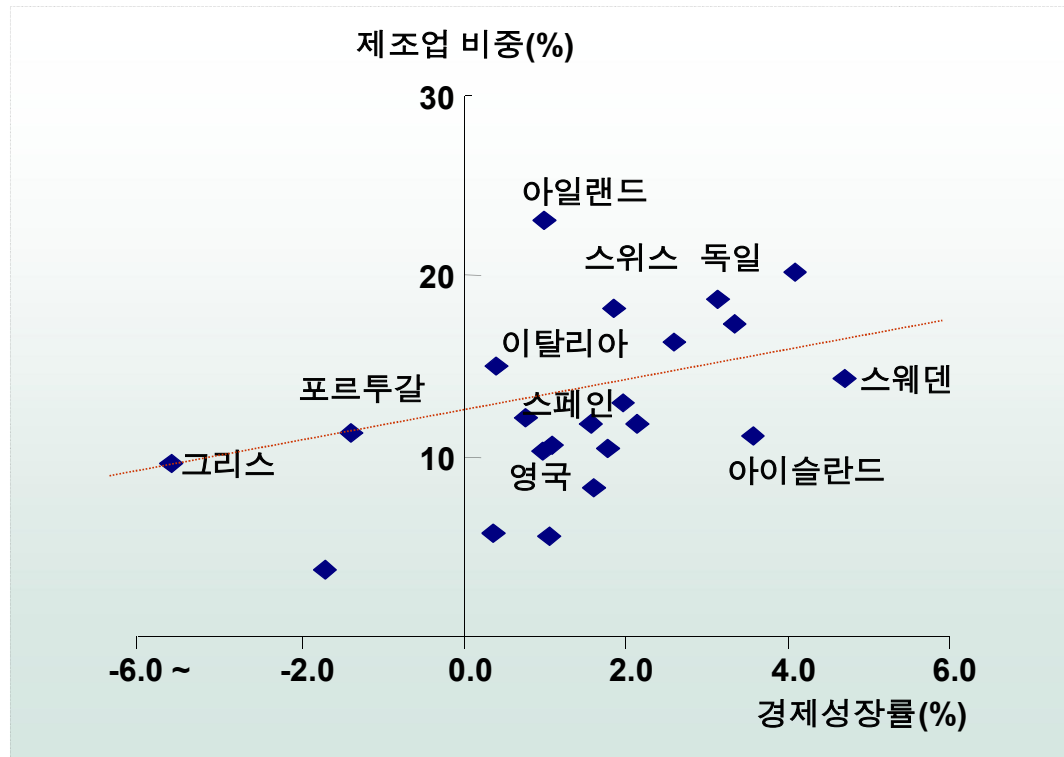
제조기업 매출 크게 증가



자료: Forbes

# 제조업 강국 독일, 경제위기 잘 견뎌내

유럽 국가 제조업 비중과 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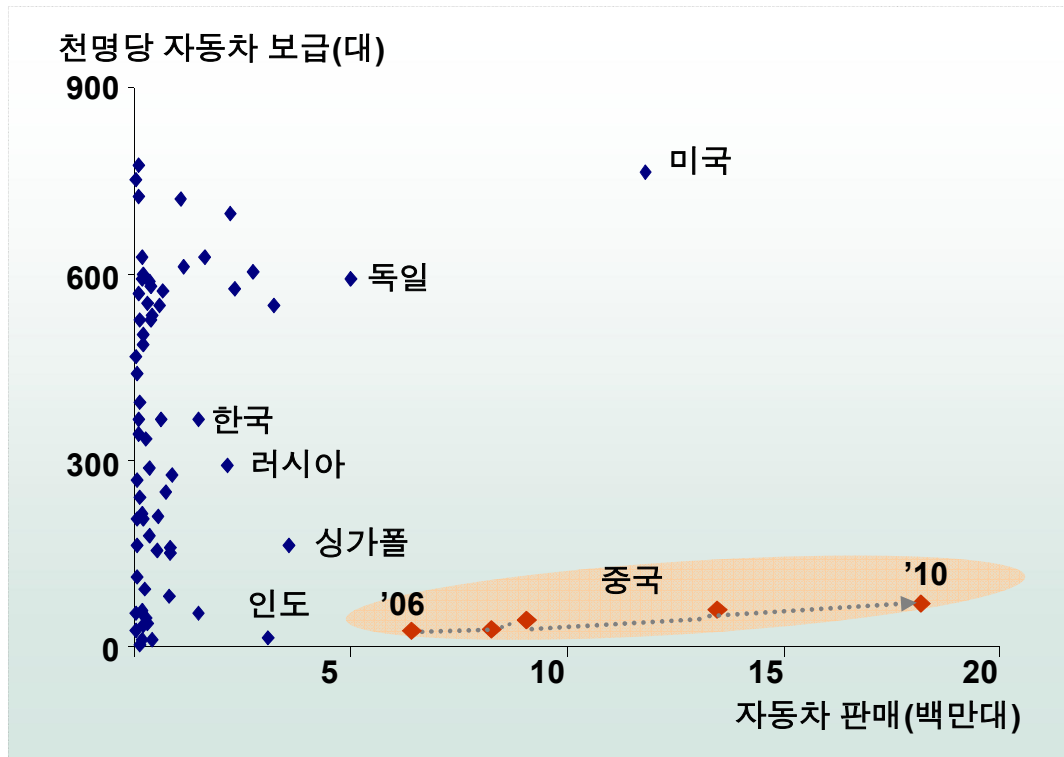


- 독일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수출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유지
-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, 포르투갈, 스페인 등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 취약

주: 제조업 비중은 2010년 기준, 경제성장률은 2011년 기준  
자료: UN

## 개도국의 제조업 제품 수요 급증

### 중국 자동차 판매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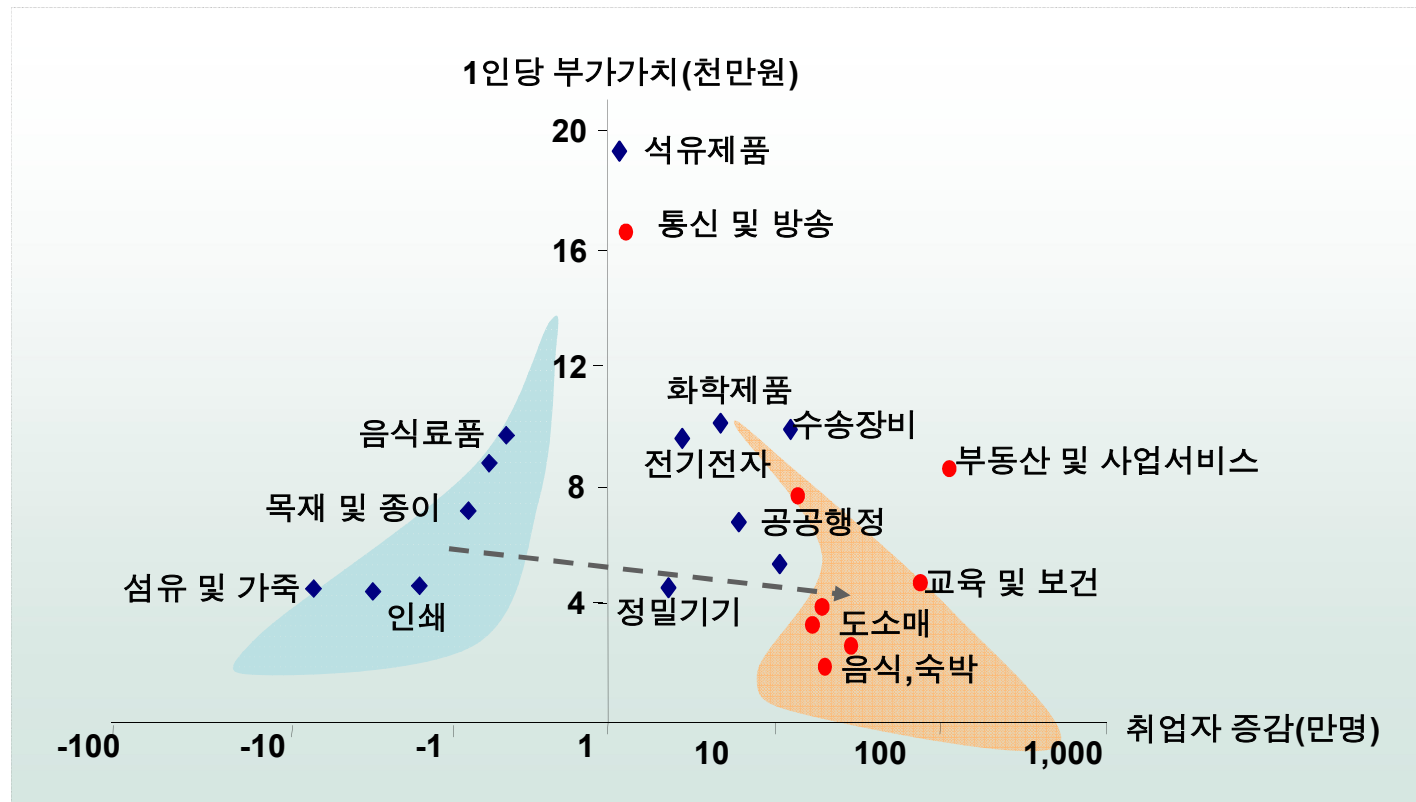


주: 2010년 기준  
자료: 각국 자동차 공업협회

- 2000년대 들어 중국 자동차 판매는 빠르게 증가
-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자동차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
- 중국 내 자동차 수요 폭발적 증가 예상

##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시급

### 저부가가치 제조업 취업자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이동



주: 1인당 부가가치는 2009년 기준, 취업자 증감은 2000년 대비 2009년 증감  
 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 산업연관표(2009)